

Hello 2007년 ESCO, 전망과

2006

ESCO
2007 전망

포스트오일 시대, ESCO 중요성 대두
우수ESCO 활동장려, 선착순 추천제 폐지

CDM사업 관심

이슈

국내에서는 올해 ESCO자금이 증액됐다. 에너지융합 리화자금이 소폭 감소되는데 비해 ESCO자금만 지난해보다 2백억 원이 증가돼 1천4백73억여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려 특성업체 편중지원 방지와 우수한 ESCO의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선착순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기간을 두고 접수분을 일괄 검토, 업체별로 지원액을 조정, 추천토록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 박정미 기자(psn0304@yahoo.co.kr)

포스트오일 시대, ESCO 중요성 대두

WEC(World Energy Council, 세계에너지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21세기를 위한 에너지 최중이용기술'에서는 산업공정, 건물, 수송 기술 등에 대한 검토결과 최중이용기술을 활용할 경우 2020년까지 25%, 2050년까지 40% 이상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와 석유고갈에 대한 위기감으로 포스트오일시대에 대한 전망과 해결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과 동시에 불필요한 에너지낭비를 막고 최대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맥킨지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기술수준만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통해 에너지비용을 감축할 수 있어 향후 15년 안에 전 세계 에너지소비량을 절반 이상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대목들이다.

LG경제연구원 박정아 박사는 "EU는 2020년까지 역내 에너지소비효율을 20%까지 개선하기 위해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기술을 적

용하며 올해부터 14개 우선 품목에 대해 절약을 의무화하고 신개축 빌딩에도 효율의무화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규제를 통해 전분야로 에너지기술혁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박 박사는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요투자부문은 산업부문의 열병합발전설비와 건물·산업체 분야의 공정개선, 폐열이용설비, 냉난방 설비를 꼽았다.

ESCO자금 증액

우수ESCO 활동장려, 선착순 추천제 폐지

국내에서는 올해 ESCO자금이 증액됐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소폭 감소된데 비해 ESCO자금만 지난해보다 2백억 원이 증가돼 1천4백73억여 원이 지원된다. 3년 전부터 자금이 조기 소진돼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에 따라 ESCO자금에 대한 반영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운영의 모를 살려 특성업체 편중지원 방지와 우수한 ESCO의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조현수 ESCO팀장은 "장기적으로 우수한 ESCO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원받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수ESCO 인증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특정업체가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착순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기간을 두고 접수분을 일괄 검토, 업체별로 지원액을 조정, 추천토록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조건은 더욱 까다롭다. 공동주택소형열병합발전 사업의 경우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키로 해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적격심사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대기업 사업 활기

지난해 주춤했던 대기업들이 ESCO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SCO자금지원 비율이 기존의 3(대기업):7(중소기업)에서 4(대기업):6(중소기업)으로 바뀌면서 위축되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사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별도의 에너지 사업브랜드를 완성하고 선포식을 가진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중적 이미지가 낮았던 에너지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환경에너지사업을 부각할 방침에서 나온것으로 향후 CDM 등 사업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사를 개소해 영업 거점을 확보하고 고객대응력도 높일 계획이다. 영업, 진단, 설계가 지사체제로 이루어지고 고객들의 불편사항이나 사후관리에 적각 대응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G사, L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산업체 공정개선쪽의 영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지만 ESCO실적이 높은 T사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ESCO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동안 산업체 공정개선사업을 통해 고객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한편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좋아 수주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CDM사업 관심

투자추이를 보면 소형열병합, 산업체공정개선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강화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에너지 시장의 변화추세에 맞춰 CDM사업 활용을 위한 신규사업구상에 들어가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DM사업이 신재생에너지시장과 맞물려 있어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ESCO사들도 있다. E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미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ESCO사업자로 등록된 ESCO의 75%가 올해 성장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에너지사용가들의 인식확대와, 기업의 생산원가 절감, 온실가스배출량 규제 압박 등의 여건이 ESCO사업의 당위성을 높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L사의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사업은 원가절감과 동시에 향후 온실가스시장진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거리로 대두되고 있어 ESCO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2007
전망